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한 부모소명 척도의 문항분석*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SSCCS) Using Item Response Theory

1차원고접수: 2025.04.10. 수정원고접수: 2025.06.01. 최종게재결정: 2025.06.20.

정다은¹ · 김유니² · 여예인³ · 양수진⁴^{1,2,3}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⁴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Jung, Daeun¹Kim, Uni²Yeo, Yein³Yang, Sujin⁴^{1,2,3,4}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항반응이론의 등급반응모형을 적용해 부모소명 척도 개별 문항의 적절성 및 척도 개선의 가능성을 측정학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국내 부모 1,470명(M = 46.89세, SD = 9.70)을 대상으로 부(529명)와 모(941명) 집단별로 자료를 분석하는 단일집단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였다. 등급반응모형에 기반한 문항모수 및 정보함수 추정 결과, 전체 문항의 변별도는 보통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범주경계난이도의 경우 항상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것(7, 8, 9번), 열정을 갖고 양육에 참여하며 이를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지각하는 것(10, 11번)과 관련된 문항에 동의하기 매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부모소명의 인식 요인 문항(7, 8, 9번)은 여성 집단에서 서로 다른 잠재 특성 수준을 가진 응답자를 변별하는 정도가 낮고 제공하는 정보량이 적었으나, 남성 집단에서는 높은 변별도와 적절한 정보량을 보였다. 이는 성별에 따라 부모 됨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전 검사이론보다 측정학적으로 엄격한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부모소명 척도의 문항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척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과 관련된 문항의 수정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부모소명, 문항반응이론, 등급반응모형, 문항모수, 정보함수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SSCCS) using the graded response model (GRM) of item response theory (IRT). Single-group IRT analyses were conducted on data from 1,470 South Korean parents (mean age = 46.89 years, SD = 9.70, 529 fathers, 941 mothers). Results from the item parameter and information function estimations showed that all items had moderate to very high discrimination. For category threshold difficulty parameters, items related to constant child awareness (items 7-9) and passionate parenting as personal growth (items 10-11) were very easy to endorse. In a relative comparison within groups, awareness factor items (7-9) showed low discrimination and information in the female group but higher discrimination and adequate information in the male group, suggesting possible differences in how parenting experiences are perceived. This study enhances understanding of the SSCCS by applying a more rigorous psychometric method than classical test theory (CTT) and proposes modifications for items measuring high levels of child awareness.

Keywords calling in child rearing, item response theory, graded response model, item parameter, information fun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소명(calling in child rearing)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부모라는 정체성을 중시

으로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며,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려는 신념을 뜻한다(김수진, 기쁘다, 이수란, 2022a). 소명(calling)은 본래 신의 부르심과 같은 종교적 개념으로 제안되었으나, 점차 학문과 개인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Dik과 Duffy(2009)는 소명을 ‘타인

* 해당 논문은 2024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 포스터로 발표됨.

Corresponding to 양수진 (Yang, Sujin)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sujinyang@ewha.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지향적인 가치와 사회적 헌신으로 이어지는 목적과 목표를 위한 삶을 가능케 하는 초월적 부르심'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현대적인 소명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에도 적용될 수 있어, 최근에는 자녀에 대한 책임과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양육 영역에서도 소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수진 등, 2022a; 김예본, 김유니, 양수진, 2023; 박성애, 강수정, 2024).

부모소명을 측정하기 위해 Coulson, Oades와 Stoyles (2012)는 질적 연구를 통해 부모소명 척도(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SSCCS)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척도는 삶의 목적(life purpose), 인식(awareness), 열정(passion)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 요인은 삶의 목적 및 정체성을 부모 됨과 연결하고, 항상 자녀에 대해 생각하고, 자녀 양육에 몰입하여 열정을 다해 참여하는 동시에 이를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부모의 희생적 헌신을 양질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의 주된 요소 중 하나로 강조해 왔으며(박영신, 김의철, 2006), 국내 부모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이처럼 부모 됨의 희생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문무경 등, 2016). 그러나 부모소명은 이러한 책임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이전보다 목적이 뚜렷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인식을 부여할 수 있다(Coulson et al., 2012). 실제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부모소명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기쁘다, 이수란, 2022; 이수란, 배유진, 양수진, 기쁘다, 2021).

그동안 연구자들은 부모로서의 삶과 부모 됨의 인식 및 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부모역할을 수행하려는 동기 및 태도와 관련된 자녀가치(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측정하는 양육효능감(최형성, 정옥분, 2005) 등의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소명은 부모 됨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는 '소명'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존 변인과는 구별되며(Coulson et al., 2012), 부모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과 자녀뿐 아니라 사회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자아실현적 믿음을 수반한다(이수란 등, 2021). 즉 부모소명 연구를 통해 단순히 양육의 맥락에서 부모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부모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행복한 부모로서의 삶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 및 부모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지닌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김나운, 2025). 누구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사회적 상황에서, 여전히 부모가 되는 길을 선택하거나 부모로서의 삶을 꾸리고 있는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김예본 등(2023)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과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 모두에서 부모소명 수준이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 거리 및 양육의 밀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부모 됨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Rossi, 1968). 따라서, 부모로서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소명을 함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소명의 개념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국내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소명의 사회연결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집단이 아버지 집단보다 부모소명에 더 다양한 개념을 연결시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손영우, 이수란, 2022b). 구체적으로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질은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추가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녀와 함께 어머니로서 성장하는 측면까지 부모소명 개념에 포함시켰다. 최근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이 강조되는 등 시대가 변화

하며 공동양육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참여가 증가하였으나(권지현, 2024), 여전히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다(김진희, 2022).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육아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ddock & Bowling, 2002). 이에 따라 부모의 역할에 대한 목적의식과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려는 수준 역시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부모소명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도구의 정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부모소명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SSCCS의 측정학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척도가 국내 부모 집단에서도 여전히 잘 기능하는지 확인하고, 향후 성별 맥락을 고려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Coulson 등의 연구(2012)에서 문항검토 및 요인분석을 거쳐 타당화된 SSCCS를 더욱 명확히 검토하기 위하여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적용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은 요인과 측정 변수 간의 비선형적 함수 관계를 살펴보고 개별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검사이론의 일종이다(이익섭, 홍세희, 신은경, 2007; Ferrando, 1996). IRT는 검사의 총점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판단하는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 CTT)과 달리 문항의 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을 독립적으로 추정하여, 문항의 질과 응답자의 잠재 특성 수준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성태제, 1998b). 특히 척도를 구성하는 개별 문항이 고유한 특성을 갖고, 문항의 모수(parameter)가 응답자의 특성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박승립, 서용원, 2016).

성격과 같은 인간의 정의적 특성 수준은 3개 이상의 다분 범주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다분문항반응이론(Polytomous Item Response Theory; PIRT)을 적용할 수 있다. PIRT는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 ICC)을 이용해 문항을 분석하며, ICC의 기울기로 표현되는 문항 변별도(item discrimination)는 각 문항이 높

은 잠재 특성과 낮은 잠재 특성 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을 효과적으로 변별하는 정도를 뜻한다. 문항 난이도(item difficulty)는 ICC의 위치 지수로 문항이 어떤 특성 수준에서 기능하는지 보여주며, 심리검사에서 ‘문항에 동의하기 어려운 정도(severity)’로 해석된다(여예인, 2023; 홍세희, 조용래, 2006).

PIRT의 종류 중 등급반응모형(Graded Response Model; GRM)은 주로 서열화된 다분 범주 척도를 활용하는 성격검사 등 정의적 태도 검사 분야에서 적용된 바 있다(성태제, 1998a). 5점 Likert 척도와 같이 가장 낮은 등급부터 가장 높은 등급의 5가지 범주가 존재할 때 응답자는 하나의 범주에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응답범주 간 경계를 범주경계라고 한다. 좋은 문항의 경우 낮은 특성 수준의 응답자들이 첫 번째 범주(예: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높은 특성 수준의 응답자들이 다섯 번째 범주(예: ‘매우 그렇다’)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정보함수에는 문항정보함수(item information function)와 검사정보함수(test information function)가 존재하며, 개별 문항이나 검사가 개인의 특성 수준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정도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성태제, 2016). 특정 특성 수준에서 높은 정보함수 값이 도출된다면, 이는 해당 수준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으며 실제 능력 모수(true ability parameter)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성태제, 2019; 여예인, 2023). 만약 SSCCS의 일부 문항이 부모소명과 관련된 응답자들의 특성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지 않다면, 문항 및 검사정보함수 값이 작아 평면 구조에 가까운 형태를 보일 것이다. 이때 해당 문항이나 검사는 잠재 특성을 측정하기에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IRT의 GRM을 적용하여 한국의 부와 모 집단에 대한 SSCCS 개별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그간 다양한 심리학 분야에서 2모수 GRM을 이용한 IRT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박승립, 서용원, 2016; 여예인, 2023; 홍상환 등, 2002), 아직까지 부모-자녀 양육 분야에서

IRT를 활용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부모의 행복감과 관계가 깊은 부모소명 척도에 IRT를 적용함으로써, SSCCS의 타당성 및 수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부모소명 척도 개선을 위한 측정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한국의 부·모 집단별 부모소명 척도(SSCCS)의 각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국의 부·모 집단에 따라 부모소명 척도(SSCCS)의 정보함수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470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남성은 529명(36.0%), 여성은 941명(64.0%)이었고,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6.89세($SD = 9.70$)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952명(64.8%),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학령기 자녀가 300명(20.4%), 만 19세 이상의 성

인 자녀가 218명(14.8%)으로 다양하였다. 총 자녀수는 1명이 490명(33.3%), 2명이 818명(55.6%), 3명 이상이 162명(11.0%)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소명

부모소명을 측정하기 위해 Coulson 등(2012)이 개발한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SSCCS)를 이수란 등(2021)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삶의 목적 6문항, 인식 3문항, 열정 2문항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1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소명 수준이 높고, 자녀 양육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책임을 다하려 함을 의미한다. Coulson 등의 연구(2012)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 .89, 인식 .83, 열정 .75,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1과 같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No.ewha-202011-0012-01)을 받아, 이화여자대학교 성장경험연구실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표 1. 부모소명 척도의 문항내용

요인	평균	문항별 키워드
삶의 목적	1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부모, 나의 운명
	2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당연한/ 타고난 목적이다.	부모, 타고난 목적
	3 부모가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부모, 존재하는 이유
	4 내 자녀는 세상에 대한 나의 기여이다.	자녀, 세상에 대한 기여
	5 엄마/아빠로서의 내가 곧 나의 정체성이다.	엄마/아빠, 나의 정체성
인식	6 부모된 것은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부모된 것, 중요
	7 나는 내 자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	항상 자녀 생각
	8 나는 자녀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자녀를 생각한다.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생각
열정	9 나는 내 자녀를 최우선으로 둔다.	자녀, 최우선
	10 나는 엄마/아빠로 사는 것에 열정적이다.	엄마/아빠로 사는 것, 열정
	11 나는 나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기대된다.	자녀와의 시간, 기대

데이터 전문업체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참여기준 미충족(4명), 응답 오류(17명) 등 연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1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총 1,470명(남성 529명, 여성 941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 25.0과 R 4.4.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5.0을 이용하여 성별 집단에 따른 부모소명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R 4.4.1의 ltm, mirt 패키지를 이용하여 2모수 등급반응모형에 기반한 문항모수를 추정하였다. 문항모수 추정은 주변최대우도추정법(Marginal Maximum Likelihood; MML)을 기반으로 한 기대최대화 알고리즘(EM algorithm)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문항변별도와 범주경계난이도를 통해 개별 문항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보함수를 고려하여 응답자의 특성 수준에 따라 부모소명 척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추정하였다. 특히 문항정보함수와 검사정보함수 그래프를 도출하여 각 문항과 전체 척도가 응답자의 잠재 특성 수준을 얼마나 정확히 추정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때 부와 모 집단별로 자료를 분석하는 단일집단 문화반응이론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 집단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평균 차이

문항모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

의 왜도의 절댓값이 3, 첨도의 절댓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며(Kline, 2023), 전체 및 6번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술통계 분석 및 차이 검정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2. 부모소명 척도 각 문항의 변별도와 난이도

GRM은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항반응 개수에서 하나 적은 수만큼의 범주경계난이도를 제공한다. 부모소명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범주는 5개, 범주경계난이도 모수는 4개($\beta_1 \sim \beta_4$)로 산출되었다. Baker(1985)에 따른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은 표 3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변별도 및 범주경계난이도는 표 4와 같다. 일반적으로 변별도가 높고, 범주경계난이도 간 간격이 유사할수록 좋은 문항이라 할 수 있다(Baker, 1985). 성별에 따른 SSCCS 전체 문항의 변별도 순서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남성 집단의 변별도는 4번($\alpha = 1.57$), 11번($\alpha = 1.65$)이 ‘높다’, 이외 모든 문항이 ‘매우 높다’ 수준으로 나타나 잘 기능하는 문항이었다. 여성 집단의 변별도는 인식 요인의 7번($\alpha = 1.11$), 8번($\alpha = 1.03$), 9번($\alpha = 1.23$)이 ‘보통이다’, 11번($\alpha = 1.55$)이 ‘높다’, 이외 문항은 ‘매우 높다’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범주경계난이도 간 간격은 집단에 무관하게 모든 문항에서 동질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IRT는 일반적인 응답자의 특성 수준을 $-3 \sim +3$ 사이로 전제하므로, 특정 문항의 난이도 범주가 이를 벗어난다면 난이도가 매우 낮거나 높아 잘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성태제, 1998a). 두 집단 모두에서 범주경계난이도가 3점 이상으로 나타나 5점으로 반응하기 매우 어려운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첫 번째 범주경계난이도의 특성 수준이 -3 이하로, 동의하기 매우 쉬운 문항은 다수 관찰되었다.

먼저, 남성 집단에서는 삶의 목적 요인 내 2번(부모, 타고난, 목적), 3번(부모, 존재, 이유), 5번(엄마/아빠, 정체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동의하기 매우 쉬운 것으로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평균 차이

(남성 $N = 529$, 여성 $N = 941$)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i>t</i>	
삶의 목적	1	남성	3.67	0.86	-0.49	0.16	3.07**
		여성	3.52	1.01	-0.55	-0.15	
	2	남성	3.53	0.93	-0.48	-0.01	5.21***
		여성	3.25	1.08	-0.25	-0.62	
	3	남성	3.48	0.99	-0.41	-0.20	4.29***
		여성	3.23	1.12	-0.23	-0.73	
	4	남성	3.53	0.89	-0.35	-0.10	4.11***
		여성	3.32	1.03	-0.37	-0.44	
	5	남성	3.49	0.91	-0.40	-0.13	3.11**
		여성	3.33	1.03	-0.31	-0.50	
	6	남성	3.88	0.74	-0.49	0.43	-0.32
		여성	3.89	0.83	-0.90	1.35	
인식	7	남성	3.98	0.77	-0.55	0.38	-7.20***
		여성	4.27	0.70	-0.82	1.09	
	8	남성	3.78	0.79	-0.47	0.54	-6.64***
		여성	4.06	0.78	-0.70	0.58	
	9	남성	3.76	0.82	-0.42	0.28	-5.75***
		여성	4.01	0.83	-0.63	0.24	
열정	10	남성	3.49	0.83	-0.12	0.03	-3.31***
		여성	3.64	0.84	-0.29	0.16	
	11	남성	3.70	0.74	-0.26	0.32	-2.41*
		여성	3.80	0.80	-0.34	0.10	
전체	남성	3.66	0.60	-0.27	0.77	-0.15	
	여성	3.67	0.65	-0.17	0.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변별도와 난이도의 언어적 표현

변별도 지수 (α)	언어적 표현	난이도 지수 (β)	언어적 표현
.01 이상 ~ .35 미만	거의 없다	-2.0 미만	매우 쉽다
.35 이상 ~ .65 미만	낮다	-2.0 이상 ~ -0.5 미만	쉽다
.65 이상 ~ 1.35 미만	보통이다	-0.5 이상 ~ +0.5 미만	보통이다
1.35 이상 ~ 1.70 미만	높다	+0.5 이상 ~ +2.0 미만	어렵다
1.70 이상	매우 높다	+2.0 이상	매우 어렵다

나타났다. 특히 열정 요인 내 10번(엄마/아빠, 사는 것, 열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문항에서 세 번째 범주경계 난이도까지 음수 값이 나타나, 응답자들의 부모소명 특성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범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즉 남성 응답자들은 부모소명 특성 수준이 평균(0)일 때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 집단 역시 유사했는데, 인식과 열정 요인 내 모든 문항에서 세 번째 범주경계난이도까지 음수 값이 관찰되었다. 즉 특성 수준에 비해 높은 범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소명의 인식과 열정 수준이 매우 낮아도 2점 이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들 역시 부모소명의 인식 및 열정 수준이 평균(0)일 때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3. 부모소명 척도의 부모 집단별 정보함수

부모소명 척도의 문항정보함수, 검사정보함수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문항정보함수는 각 문항

표 4. 부모소명 척도의 문항모수 추정치

집단	요인	문항 내용 (번호, 키워드)	문항 변별도	범주경계난이도			
				1	2	3	4
남성	삶의 목적	1. 부모, 운명	2.17	-3.06	-1.64	-0.41	1.33
		2. 부모, 타고난, 목적	2.11	-2.58	-1.39	-0.22	1.48
		3. 부모, 존재, 이유	2.50	-2.21	-1.19	-0.10	1.29
		4. 자녀, 세상, 기여	1.57	-3.40	-1.74	-0.21	1.72
		5. 엄마/아빠, 정체성	2.29	-2.64	-1.30	-0.17	1.57
		6. 부모된 것, 중요	1.88	-4.44	-2.34	-0.85	1.25
	인식	7. 자녀, 항상, 생각	2.15	-3.75	-2.30	-0.91	0.84
		8. 자녀, 함께 있지 않을 때, 생각	1.79	-3.47	-2.34	-0.59	1.36
		9. 자녀, 최우선	1.93	-3.32	-2.11	-0.51	1.26
	열정	10. 엄마/아빠, 사는 것, 열정	2.14	-3.08	-1.68	0.01	1.61
		11. 자녀와, 시간, 기대	1.65	-3.93	-2.56	-0.45	1.70
여성	삶의 목적	1. 부모, 운명	2.62	-2.07	-1.16	-0.24	1.23
		2. 부모, 타고난, 목적	2.91	-1.76	-0.77	0.11	1.39
		3. 부모, 존재, 이유	2.67	-1.72	-0.72	0.11	1.35
		4. 자녀, 세상, 기여	2.26	-2.06	-0.98	0.00	1.59
		5. 엄마/아빠, 정체성	2.54	-2.02	-0.91	0.03	1.45
		6. 부모된 것, 중요	2.01	-2.86	-1.99	-0.88	1.03
	인식	7. 자녀, 항상, 생각	1.11	-5.67	-4.37	-2.19	0.45
		8. 자녀, 함께 있지 않을 때, 생각	1.03	-6.01	-3.53	-1.65	1.03
		9. 자녀, 최우선	1.23	-4.75	-2.99	-1.20	0.86
	열정	10. 엄마/아빠, 사는 것, 열정	1.88	-3.08	-1.99	-0.26	1.40
		11. 자녀와, 시간, 기대	1.55	-3.93	-2.53	-0.62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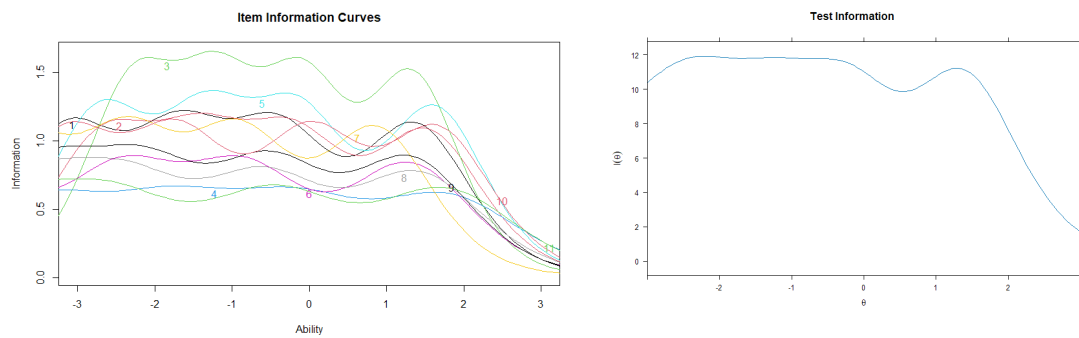
표 5. 성별에 따른 SSCCS 변별도

남성	여성
3번($\alpha = 2.50$)	2번($\alpha = 2.91$)
5번($\alpha = 2.29$)	3번($\alpha = 2.67$)
1번($\alpha = 2.17$)	1번($\alpha = 2.62$)
7번($\alpha = 2.15$)	5번($\alpha = 2.54$)
10번($\alpha = 2.14$)	4번($\alpha = 2.26$)
2번($\alpha = 2.11$)	6번($\alpha = 2.01$)
9번($\alpha = 1.93$)	10번($\alpha = 1.88$)
6번($\alpha = 1.88$)	11번($\alpha = 1.55$)
8번($\alpha = 1.79$)	9번($\alpha = 1.23$)
11번($\alpha = 1.65$)	7번($\alpha = 1.11$)
4번($\alpha = 1.57$)	8번($\alpha = 1.03$)

이 응답자의 잠재 특성(θ) 수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나타내며, 검사정보함수는 전체 척도가 응답자 특성에 대해 제공하는 누적된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그 래프의 X축은 응답자의 잠재 특성 수준(θ)을, Y축은 문항이나 척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뜻한다(성태제, 2016; 여예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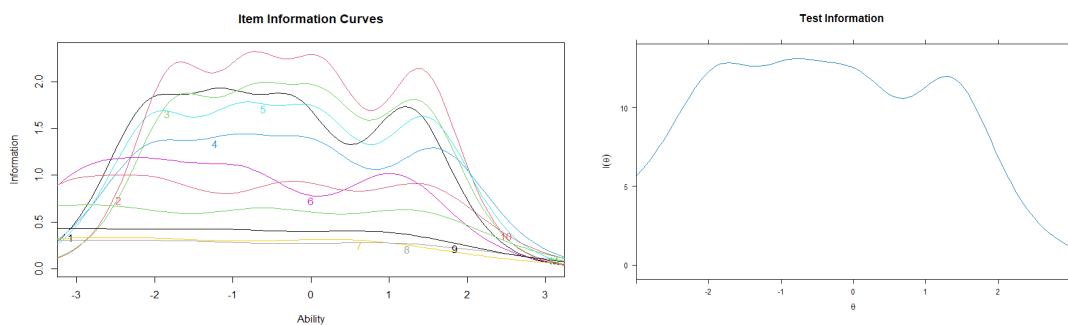
남성 집단에서 부모소명의 문항정보함수는 3, 5, 1, 7, 10, 2, 9, 6, 8, 11, 4번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문항은 응답자의 부모소명 잠재 수준(θ)이 평균(0)에서 2 표준편차 이내($-2 \sim 2$)일 때 전반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극단적으로 높은 특성 수준($\theta > 2$)에서는 정보량이 감소하였다. 다만 7번(자녀, 항상, 생각)은 잠재 특성 수준이 1 표준편차 이상($\theta \geq 1$)으로 높아질 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정보함수는 응답자의 부모소명 수준이 2 표준편차 이내일 때 유사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성 집단에서 부모소명의 문항정보함수는 2, 3, 1, 5, 4, 6, 10, 11, 9, 7, 8번 순으로 높았다. 수치가 가장 낮았던 순서대로 8번(자녀, 함께 있지 않을 때, 생각), 7번(자녀, 항상, 생각), 9번(자녀, 최우선)의 경우 모든 특성 수준에서 균일하게 매우 적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검사정보함수는 응답자의 부모소명 잠재 수준이 2 표준편차 이내($-2 \sim 2$)일 때 높은 값을 유지하는



주. X축 = 응답자의 잠재 특성 수준(θ), Y축 = 정보량.

그림 1. 남성 집단의 부모소명 문항정보함수(원), 검사정보함수(오)



주. X축 = 응답자의 잠재 특성 수준(θ), Y축 = 정보량.

그림 2. 여성 집단의 부모소명 문항정보함수(원), 검사정보함수(오)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부모소명 척도는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부모소명에 대한 잠재 특성 수준이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이내일 때 가장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소명이 대다수의 응답자 특성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 집단의 경우 부모소명의 인식 요인에 해당하는 7번(자녀, 항상, 생각), 8번(자녀, 함께 있지 않을 때, 생각), 9번(자녀, 최우선)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모든 응답자의 특성 수준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 집단의 경우 4번(자녀, 세상, 기여)이 다소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전검사이론에 기반하여 타당화된 부모

소명 척도(SSCCS)의 특성을 측정학적으로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국내 부모 1,47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SSCCS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항반응이론의 등급반응모형을 적용하여 전체 문항을 검토하였다. 분석 시 성별에 따라 부모소명의 개념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집단을 구분하였다. 문항별 특성 및 정보함수 추정치에 대한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범주경계난이도를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에서 3점 이상으로 5점으로 반응하기 매우 어려운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항상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것(7, 8, 9번), 열정을 갖고 양육에 참여하며 이를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지각하는 것(10, 11번)과 관련된 문항에 동의하기 매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집단은 부모됨을 삶의 목적, 정체성에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1, 4, 6번)에서도 쉽게 동의하였다.

문항 변별도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모든 문항의 변별도가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별도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의 잠재 특성을 더 잘 추정하기 때문에 SSCCS의 문항은 전반적으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삶의 목적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변별도를 보였으므로, 부모소명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문항정보함수의 경우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변별도와 동일한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정보함수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응답자의 부모소명 수준이 2보다 작을 때 가장 정확히 추정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성 집단에서 부모소명의 인식 요인과 관련된 7번(자녀, 항상, 생각), 8번(자녀, 함께 있지 않을 때, 생각), 9번(자녀, 최우선) 문항의 변별도는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항정보함수에서 3문항 모두 전체적인 특성 수준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량이 매우 낮게 나타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SSCCS 문항 특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 집단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집단 내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부모소명의 인식 요인에 해당하는 7, 8, 9번 문항의 변별도가 여성 집단에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보통 수준($\alpha = 1.03 \sim 1.23$)으로 낮았다. 그러나 남성 집단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alpha = 1.79 \sim 2.15$)으로 나타나 서로 다르게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문항정보함수에 따르면 여성 집단에서 인식 요인의 7, 8, 9번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 집단에서는 부모소명의 모든 특성 수준에 걸쳐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주경계난이도 역시 여성(예: 8번, $\beta = -6.01 \sim 1.03$)이 남성($\beta = -3.47 \sim 1.36$)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음수값을 보이며 인식 요인의 세 문항에 쉽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차이는 성별에 따라 부모소명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김수진 등, 2022b)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육아를 삶의 중심 활동으로 인식하며, 어머니로서

자녀의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할을 기대받는다(Haddock & Bowling, 2002). 이러한 기대는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지적 주의를 일상적인 것으로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부모소명의 인식 요인에 해당하는 세 문항(예: ‘나는 자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은 어머니라면 당연한 내용처럼 여겨질 수 있으며, 실제 자녀에 대한 사고 빈도와 상관없이 높은 점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녀에 대해 얼마나 자주, 깊이 생각하는지와 무관하게 사회적 기대나 역할 규범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식 문항들은 여성 집단 내에서 부모소명 인식 수준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변별하지 못하고, 정보량 또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녀에 대한 사고의 유무’보다는 그 사고의 맥락이나 자기 자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항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자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나는 바쁜 상황에서도 자녀와 관련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와 같이 상황적 조건을 제시하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나는 내 자녀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녀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와 같이 자녀를 우선시하는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화하여 실제 인식 수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남성 집단에서는 인식 문항의 변별도가 높고 좋은 정보량을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사회적 의무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은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수 있다(신경아, 2014). 또한 부모소명 인식 네트워크를 분석한 김수진 등의 연구(2022b)에서, 부 네트워크에서 ‘부모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은 자녀 성장, 책임감, 헌신, 인간적 자질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들은 자녀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에 책임을 느끼고 헌신하는 가장의 역할에 부합한다. 반면 모 네트워크에서는 위 네 가지에 정체감, 부모 성장, 방향성을 포함하여 더 포괄적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좁고 명확한 의미에서 자신의 인식 수준을 적절히 선택하기 용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번(부모, 운명), 4번(자녀, 세상, 기여), 6번(부모된 것, 중요) 문항은 남성 집단에서 범주경계난이도의 첫 번째 수치가 -3 미만으로 나타나($\beta = -4.44 \sim -3.06$), 동의하기 매우 쉬운 경향이 있었다. 특히 4번 문항의 경우에는 정보함수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이 문항 역시 구체적 사고나 행동 맥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나는 내 자녀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전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문항을 구체화한다면 단순한 사회적 역할 규범에서 벗어나 실제 인식 수준과 관련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여성 집단에서 위의 세 문항은 범주경계난이도가 특성 범주인 -3 ~ 3 사이에 위치하여($\beta = -2.86 \sim -2.06$) 적절히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부모 됨에 대한 가치 진술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여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생계부양자’로 한정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가장으로서의 일차적 의무를 충분히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신경아, 2014). 이에 따라 남성 응답자는 ‘운명’, ‘세상에 대한 나의 기여’와 같은 삶의 의미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표현에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했기에 큰 숙고 없이 비교적 쉽게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성은 부모 됨을 보다 포괄적이고 정서적으로 내면화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김수진 등, 2022b), 삶의 목적에 대한 자기 인식과 연결하여 문항을 더 신중히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남성은 삶의 목적 요인에서, 여성은 인식 요인에서 상대 집단보다 더 큰 상향 편향이 나타났다. 이는 실제보다 이상화된 응답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혹은 성역할 기대가 측정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소명은 부모역할에 대한 깊은 의미감과 헌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국 사회에서 ‘좋은 부모’에 대한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 이때 성별에 따라 기대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응답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가정의 기둥’ 역할과 관련된 삶의 목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우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인식 차원에서 더 높은 사회적 기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척도 개선 시 이들 문항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널리 이용된 SSCCS 개별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고전검사이론보다 측정학적으로 엄격한 방법론인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문항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부모소명 척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SSCCS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능할 수 있음을 상대적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집단에서 부모소명의 동일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변별도와 정보량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됨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내용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선행 연구(김수진 등, 2022b)를 뒷받침하는 결과일 수 있어, 부모소명의 성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소명을 활용한 부모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소명을 경험하는 데 있어 ‘삶의 목적’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부모 됨이 개인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 삶의 가치와 부모 역할의 통합적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이는 양육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하여 부모소명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측정 편향 패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데,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 기준과 실제 경험 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응답 시 나타날 수 있는 상향 편향을 고려한 해석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특히 높은 점수를 보인 내담자의 경우에도 응답 수준과 현실 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층 면담이나 행동 관찰과 같은 보완적 접근과 병행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본을 이용해 성별에 따른 부모소명 척도의 문항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부모 집단을 자녀 연령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가 수행하는 역할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oulson et al., 2012). 실제로 성인 자녀의 경우 미취학, 학령기 자녀와 달리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양육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박영아, 2005; 박지영, 진경선, 2021),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 연령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집단이 아닌 단일집단 문화반응이론을 적용하였다. 비록 단일집단 분석을 통해 SSCCS의 전체 문항이 남성, 여성 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효과적으로 탐색하였으나, 집단별 데이터를 개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문화반응이론을 적용하여 SSCCS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기능문항(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기능하는 구체적인 문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부모소명 실증연구에 필수적인 SSCCS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삶을 선택한 구성원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반응이론을 통해 SSCCS 척도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기능에 차이가 나타난 문항들을 발견하였다. 이는 여성과 남성 간에 부모소명의 개념이나 지각에 대한 차이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됨은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발달 과업이며(Erikson, 1968), 부모소명이 개인의 행복감에 중요한 요소임(기쁘다, 이수란, 2022)을 고려할 때, 성차의 가능성은 부모소명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부모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SSCCS의 척도 개선 방향을 바탕

으로, 자녀 양육으로부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모소명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자녀를 양육하거나 계획하는 부모들의 안녕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지현 (2024. 5. 8). 기혼남녀, ‘아빠에게 가장 필요한 권리’로 ‘육아시간’ 꼽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8152600530>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 기쁘다, 이수란 (2022). 부모소명이 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정과 삶의질연구*, 40(1), 41-52.
<https://doi.org/10.7466/JFBL.2022.40.1.41>
- 김나운 (2025.3.6). 애 안낳는 한국 “대책 안세우면 인구 반토막”...OECD의 경고. 뉴스:트리.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503060004>에서 2025년 3월 17일 인출
- 김수진, 기쁘다, 이수란 (2022a). 부모소명의 한국적 의미와 개념 탐색. *인문논총*, 58, 143-172.
<https://doi.org/10.33638/JHS.58.6>
- 김수진, 손영우, 이수란 (2022b). 부모소명 개념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시각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6(2), 93-114.
<https://doi.org/10.51457/kjcp.2022.12.6.2.93>
- 김예본, 김유니, 양수진 (2023). 부모소명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미취학 자녀와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6(3), 71-89.
<https://doi.org/10.35574/KJDP.2023.9.36.3.71>
- 김진희 (2022. 4. 19). ‘여성=자녀돌봄’ 인식만 바뀌었다... ‘女 3.74시간 · 男 1.2시간’.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653682>에서 2025년 3월 14일 인출
-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1.
- 박성애, 강수정 (202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소명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공동양육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2(2), 27-44.
<https://doi.org/10.7466/JFBL.2024.42.2.27>
- 박승립, 서용원 (2016). 형평 선호 질문항의 수정을 위한 예비연구: 문화반응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2), 133-155.
<https://doi.org/10.24230/ksiop.29.2.201605.133>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아 (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유아교육연구, 8, 97-113.
- 박지영, 진경선 (2021).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33-151.
<https://doi.org/10.35574/KJDP.2021.12.34.4.133>
- 성태제 (1998a). 다분문화반응이론(등급반응모형)에 의한 학구적 실패내성척도의 문항분석과 피험자 특성추정. 교육심리연구, 12(2), 203-218.
- 성태제 (1998b). 부록: 고전검사이론과 문화반응이론에 의한 문항과 검사 분석. 한국고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학술자료집, 143-170.
- 성태제 (2016). 문화반응이론의 이해와 적용. 경기 파주: 교육과학사.
- 성태제 (2019). 문화반응이론 입문. 서울: 학지사.
-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아동학회지, 35(5), 15-35.
<https://doi.org/10.5723/kjes.2014.35.5.15>
- 신경아 (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153-187.
- 여예인 (2023). Grit-S 척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 비교문화연구: 다집단 요인분석 및 문화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란, 배유진, 양수진, 기쁘다 (2021).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53-182.
<https://doi.org/10.35574/KJDP.2021.12.34.4.153>
- 이익섭, 홍세희, 신은경 (2007). 장애 정체감 척도의 Rasch 모형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9(4), 273-296.
- 최형성, 정옥분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1), 51-67.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세희,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865-880.
- Baker, F. B. (1985). *The basics of item response theory*. Portsmouth, N. H.: Heinemann.
- Coulson, J. C., Oades, L. G., & Stoyles, G. J. (2012). Parents'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Measurement, development and initial finding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2), 83-94.
<https://doi.org/10.1080/17439760.2011.633547>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https://doi.org/10.1177/0011000008316430>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Ferrando, P. J. (1996). Calibration of invariant item parameters in a continuous item response model using the extended Lisrel measurement submodel.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1(4), 419-439.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104_2
- Haddock, S. A., & Bowling, S. W. (2002). Therapists' approaches to the normative challenges of dual-earner couples: Negotiating outdated societal ideologie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13(2-3), 91-120.
https://doi.org/10.1300/J086v13n02_06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ossi, A. S. (1968).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1), 26-39.
<https://doi.org/10.2307/350219>